세계 향신료 교역 동향:
강황, 겨자, 샤프란, 생강, 육두구를 중심으로

신 유 선 *

1. 서론

향신료는 식재료의 하나로 식물의 꽃, 열매, 씨앗,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해서 음식에 맛과 향을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향과 맛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국가별로 대표 향신료를 살펴보면, 이탈리아는 '오레가노', 그리스는 '타임', 중동은 '커민', 인도는 '강황', 동남아는 '고수', 인도네시아는 '계피'가 중요한 향신료로 음식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표 1> 향신료 분류

구분		향신료 종류
식물 부위별	꽃	샤프란, 정향, 케이퍼
	열매	파프리카, 바닐라, 팔각
	씨앗	육두구, 커민, 겨자, 캐러웨이, 아니스, 카다몬, 회향
	줄기, 껍질	계피
	뿌리	생강, 강황
향과 맛	매운맛	후추, 겨자, 생강
	독특한 맛과 향	육두구, 정향, 계피, 클로브, 양파, 마늘, 커민, 셀러리, 캐러웨이
	향	세이지, 바질, 오레가노, 타임, 월계수잎, 카다몬
	색	파프리카, 강황, 샤프란

자료: 저자 작성.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shinys@krei.re.kr).
본 고는 FAO STAT와 UN Comtrade 홈페이지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세계 3대 향신료(후추, 계피, 정향)[1]에 대해서 이미 다룬 바 있으므로 본 고에서는 기타 주요 향신료(강황, 겨자, 샤프란, 생강, 육두구)를 중심으로 국가별 교역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세계 기타 향신료 교역 동향

2.1. 강황

강황(Turmeric)은 카레 등에 넣는 향신료로 잘 알려져 있다. 강황은 생강과(Zingiber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원산지가 인도이며, 비가 많이 내리는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재배된다. 강황가루는 밝은 노란색을 띄는데, 이는 '커큐민'이라는 성분 때문으로 과거에는 천연염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강황은 염증을 낮추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커큐민'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항염과 해독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강황을 향신료로 쓸 때는 뿌리줄기(근경)를 이용하는데, 이 부분을 끓이고 말린 후 가루로 만들어서 사용한다. 강황은 카레 요리, 쌀이나 콩 요리 등에 색을 내기 위한 착색료나 향신료로 이용된다.

<그림 1> 강황 꽃과 뿌리줄기

(강황 꽃)

(강황 뿌리줄기)

자료: 나무위키(https://namu.wiki, 검색일: 2020.3.9.) 검색에서 재인용.

1) 세계농업 2019년 11월호 '세계 3대 향신료 생산 및 교역 동향: 후추, 계피, 정향을 중심으로' 참조.

2.1.1. 수출 동향

세계 강황 수출량은 2000년 4만 5,000톤에서 2018년 16만 3,000톤으로 263% 증가하였으며, 2018년 기준 세계 강황 수출액은 3억 1,335만 달러 수준이다. 강황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인도로 세계 수출량의 75.1%인 12만 2,000톤(2억 3,754만 달러)을 수출하고 있다.

수출 2위인 미얀마는 2018년 기준 강황 수출량이 1만 5,000톤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1%이며, 수출액으로는 1,210만 달러 수준이다. 수출량으로는 미얀마가 2위이지만, 수출액 기준으로는 인도네시아(1,296만 달러)가 세계 2위이다. 상위 5개국의 강황 수출량은 전 세계 수출량의 92.7%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수출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6.1%이다.

<표 2> 국가별 강황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

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45	65	139	125	141	155	163	(100.0)
인도	39	50	108	89	102	108	122	(75.1)
미얀마	0	0	10	10	11	20	15	(9.1)
인도네시아	0	1	6	9	8	8	10	(5.9)
네덜란드	1	1	1	2	2	3	3	(1.6)
아랍에미리트	0	6	0	2	2	2	2	(1.1)
페루	0	0	1	1	1	2	2	(1.0)
독일	0	0	1	1	1	1	1	(0.7)
피지	0	0	0	0	1	1	1	(0.6)
중국	2	1	2	1	1	2	1	(0.6)
스페인	0	0	0	0	0	1	1	(0.5)

주: 2018년 기준 수출량이 많은 1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0.3.9.).

2.1.2. 수입 동향

세계 강황 수입량은 2000년 4만 1,000톤에서 2018년 12만 8,000톤으로 211.2% 증가하였으며, 2018년 기준 세계 강황 수입액은 2억 4,942만 달러 수준이다. 인도는 강황의 최대 수출국인 동시에 최대 수입국이다. 인도의 강황 수입량은 2018년 기준 3만 1,000톤으로 세계 수입량의 24.6%를 차지하며, 수입액으로는 4,454만 달러 수준이다.

세계 수입 2위는 모로코와 미국으로 각각 1만 톤을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액으로는 모로코가 1,286만 달러, 미국은 3,796만 달러 수준이다. 이는 미국이 모로코에 비해 고품질의 강황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말레이시아(6.2%), 영국(5.7%), 아랍에미리트(5.5%), 사우디아라비아(4.0%) 등의 순으로 강황을 많이 수입하고 있다. 상위 5개국의 강황 수입량은 세계 수입량의 51.7%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수입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8%이다. 우리나라의 2018년 기준 강황 수입량은 8,000톤으로 세계에서 26위이다.

<표 3> 국가별 강황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

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41	65	73	119	117	132	128	(100.0)
인도	0	3	4	14	15	16	31	(24.6)
모로코	1	1	1	3	4	5	10	(7.6)
미국	3	5	4	6	8	9	10	(7.6)
말레이시아	2	4	6	7	7	7	8	(6.2)
영국	2	3	3	4	4	5	7	(5.7)
아랍에미리트	0	9	0	7	8	8	7	(5.5)
사우디아라비아	1	2	2	4	5	5	5	(4.0)
독일	1	1	2	3	4	4	5	(3.6)
일본	4	4	4	5	4	4	4	(3.2)
네덜란드	1	2	2	3	3	4	4	(2.7)
한국	0.3	0.4	0.5	1.3	1.2	1.0	0.8	(0.7)

주: 2018년 기준 수입량이 많은 1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0.3.9.).

2.2. 겨자

겨자(Mustard)는 흔히 냉면을 먹을 때 넣거나, 프라이드 치킨을 찍어 먹는 '머스터드 소스' 재료로 잘 알려져 있다. 겨자는 십자화과(Cruciferae)에 속하는 1~2년생 식물로 꽃의 씨앗은 향신료와 약재로 사용하고, 잎과 줄기는 식재료로 이용된다. 겨자 잎(겨자채)은 우리가 주로 마트 쌈채소 판매대에서 볼 수 있으며, 알싸한 맛으로 고기 등을 싸 먹거나 샐러드 재료로 쓰인다.

겨자 씨앗은 작고 황갈색으로 맵고 향기로운 맛이 있어 향신료로 이용되는데, 씨를 건조하여 제분 및 가공하여 만든다. 가공한 겨자 소스는 특유의 맛과 향으로 각종 요리의 향신료로 사용된다. 겨자 소스는 보통 개어놓은 상태의 브라운 머스터드로 판매되는데, 머스터드 분말로 이용할 때는 매운맛이 없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찬물을 사용해야 한다. 겨자는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면역력 증진과 소화 촉진에 효과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쌈 채소용으로 겨자가 널리 재배되고 있으며, 주로 적겨자채를 먹고 있다.

<그림 2> 겨자 꽃과 씨앗

(겨자 꽃)

(겨자 씨앗)

자료: 나무위키(https://namu.wiki, 검색일: 2020.3.9.)에서 재인용.

2.2.1. 수출 동향

세계 겨자 수출량은 2000년 26만 6,000톤에서 2018년 32만 5,000톤으로 22.3% 증가하였으며, 2018년 기준 세계 겨자 수출액은 2억 5,623만 달러 수준이다. 겨자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캐나다로 세계 수출량의 35.2%인 11만 4,000톤(8,955만 달러)을 수출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 2위인 러시아는 2018년 기준 겨자 수출량이 6만 톤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4%이며, 수출액으로는 3,597만 달러 수준이다.

<표 4> 국가별 겨자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

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266	281	268	308	272	289	325	(100.0)
캐나다	159	123	128	120	114	121	114	(35.2)
러시아	26	16	11	40	28	37	60	(18.4)
독일	11	15	18	23	28	25	24	(7.5)
인도	1	7	8	15	9	18	21	(6.4)
우크라이나	0	66	52	45	35	23	17	(5.3)
카자흐스탄	–	–	0	5	3	9	15	(4.8)
우루과이	–	–	–	–	–	0	15	(4.6)
미국	3	4	2	3	7	11	14	(4.4)
벨기에	2	4	8	9	9	10	12	(3.6)
체코	34	24	18	13	11	12	9	(2.9)

주: 2018년 기준 수출량이 많은 1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0.3.9.).

그 밖에 독일(7.5%), 인도(6.4%), 우크라이나(5.3%), 카자흐스탄(4.8%) 등의 순으로 겨자를 많이 수출하고 있다. 상위 5개국의 겨자 수출량은 전 세계 수출량의 72.8%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수출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0%이다.

2.2.2. 수입 동향

세계 겨자 수입량은 2000년 23만 1,000톤에서 2018년 25만 2,000톤으로 9.0% 증가하였으며, 2018년 기준 세계 겨자 수입액은 2억 2,603만 달러 수준이다. 겨자의 최대 수입국은 미국으로 2018년 기준 6만 3,000톤을 수입해 세계 수입량의 25.0%를 차지하며, 수입액으로는 4,688만 달러 수준이다.

세계 수입 2위인 독일은 4만 8,000톤을 수입하며, 수입액으로는 4,298만 달러 수준이다. 독일(19.0%) 다음으로 프랑스(11.8%), 폴란드(6.5%), 벨기에(5.5%), 네덜란드(4.6%) 등의 순으로 겨자를 많이 수입하고 있다.

상위 5개국의 겨자 수입량은 세계 수입량의 67.7%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수입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4%이다. 우리나라의 2017년 기준 겨자 수입량은 2,000톤으로 세계에서 120위이다.

<표 5> 국가별 겨자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

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전 세계	231	251	257	319	274	283	252	100.0
미국	37	35	60	68	67	68	63	25.0
독일	46	39	59	74	51	51	48	19.0
프랑스	31	33	21	24	26	23	30	11.8
폴란드	6	4	15	18	11	13	16	6.5
벨기에	4	6	11	11	11	12	14	5.5
네덜란드	16	13	14	17	12	16	12	4.6
캐나다	1	1	0	0	0	8	7	2.8
일본	9	8	5	6	5	5	5	1.9
헝가리	0	1	1	2	3	2	5	1.8
러시아	0	0	0	2	3	4	4	1.6
⋮	⋮	⋮	⋮	⋮	⋮	⋮	⋮	⋮
한국	2	2	2	3	1	2	–	

주: 2018년 기준 수입량이 많은 1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0.3.9.).

2.3. 샤프란

샤프란(Saffron)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이다. 외떡잎식물 백합목 붓꽃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온난하고 비가 적은 곳에서 재배된다. 샤프란은 암술을 말려서 사용하며, 강한 노란색으로 독특한 향과 쓴맛, 단맛이 있어 향신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염료로도 쓰인다. 요리에는 주로 색이나 향을 가미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소스 및 빵, 과자, 버터, 치즈 등에 독특한 향과 색을 내기 위해 쓴다.

샤프란 1g을 얻기 위해서는 수작업으로 160개의 구근에서 핀 꽃을 따서 500개의 암술을 말려야 하므로 무게로 따졌을 때 '금'보다 비싼 향신료이다. 꽃은 줄기 끝에 한 송이씩 10~11월에 피는데, 꽃이 활짝 피었을 때 꽃을 따 즙을 짜내어 약으로 쓰거나 암술대 윗부분을 잘라 건조시켜 약으로 쓰는데, 꽃 말린 것을 번홍화(蕃紅花)라 하여 진정제 및 진통제로 사용한다.

<그림 3> 샤프란 꽃과 말린 암술

(샤프란 꽃)

(샤프란 말린 암술)

자료: 네이버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검색일: 2020.3.10.)에서 재인용.

2.3.1. 수출 동향

세계 샤프란 수출량은 2000년 550톤에서 2017년 1,610톤으로 192.9% 증가하였으며, 2017년 기준 세계 샤프란 수출액은 4억 3,644만 달러 수준이다. 샤프란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스페인으로 세계 수출량의 49.1%인 791톤(6,008만 달러)을 수출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 2위인 이란은 2017년 기준 샤프란 수출량이 236톤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7%이며, 수출액으로는 3억 2,565만 달러 수준이다.

<표 6> 국가별 샤프란 수출 동향

단위: 톤, (%)

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전 세계	550	812	1,448	1,364	1,394	1,610	(100.0)
스페인	39	64	193	411	77	791	(49.1)
이란	103	176	101	–	203	236	(14.7)
영국	10	146	195	117	186	142	(8.8)
인도	3	5	0	110	33	74	(4.6)
중국	67	3	243	169	173	61	(3.8)
남아프리카	0	1	52	49	69	40	(2.5)
미국	0	0	31	41	57	39	(2.4)
벨기에	2	10	11	23	24	38	(2.3)
네덜란드	6	1	34	35	35	31	(1.9)
아랍에미리트	–	30	–	21	14	30	(1.9)

주: 2017년 기준 수출량이 많은 1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0.3.9.).

수출량으로는 스페인이 1위이지만, 수출액 기준으로는 이란이 세계 1위이다. 그 밖에 영국(8.8%), 인도(4.6%), 중국(3.8%), 남아프리카(2.5%) 등의 순으로 샤프란을 많이 수출하고 있다. 상위 5개국의 샤프란 수출량은 전 세계 수출량의 81.0%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수출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2.0%이다.

2.3.2. 수입 동향

세계 샤프란 수입량은 2000년 984톤에서 2017년 2,505톤으로 154.6% 증가하였으며, 2017년 기준 세계 샤프란 수입액은 2억 6,178만 달러 수준이다. 샤프란의 최대 수입국은 영국으로 2017년 기준 1,055톤을 수입해 세계 수입량의 42.1%를 차지하며, 수입액으로는 533만 달러 수준이다. 세계 수입 2위인 아일랜드는 535톤을 수입하며, 수입액으로는 105만 달러 수준이다. 아일랜드(21.4%) 다음으로 아랍에미리트(6.3%), 말레이시아(2.9%), 벨기에(2.7%) 등의 순으로 샤프란을 많이 수입하고 있다. 상위 5개국의 샤프란 수입량은 세계 수입량의 75.4%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수입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8%이다. 우리나라의 2017년 기준 샤프란 수입량은 90kg으로 세계에서 102위이다.

<표 7> 국가별 샤프란 수입 동향

단위: 톤, (%)

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전 세계	984	1,186	1,358	3,617	3,372	2,505	(100.0)
영국	174	260	410	1,271	1,517	1,055	(42.1)
아일랜드	10	16	127	445	513	535	(21.4)
아랍에미리트		120		181	96	159	(6.3)
말레이시아	3	1	29	980	209	73	(2.9)
벨기에	19	73	61	12	110	68	(2.7)
미국	20	47	17	38	42	51	(2.1)
체코	1	2	20	52	46	49	(2.0)
알제리	0	10	22	54	44	39	(1.6)
사우디아라비아	25	47	38	29	38	37	(1.5)
중국	1	3	4	7	30	35	(1.4)
⋮	⋮	⋮	⋮	⋮	⋮	⋮	⋮
한국	0.41	0.15	0.09	0.15	0.11	0.09	(0.0)

주: 2017년 기준 수입량이 많은 1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0.3.9.).

2.4. 생강

생강(Ginger)은 우리나라에서 김장을 담글 때 필수적인 양념 뿌리채소이다. 외떡잎식물 생강과(Zingiber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원산지는 동남아시아이다. 생강은 많은 나라에서 식용, 약용, 향신료로 널리 쓰이며, 감자와 비슷하게 주로 덩이줄기를 이용한다. 약용으로는 덩이줄기 말린 것을 약재로 사용하며, 감기, 복통, 근육통 완화 및 항염(감염 억제) 등에 효과가 있다. 덩이줄기는 말린 후 분쇄해서 빵, 과자, 카레, 소스 등에 향신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껍질을 벗기고 끓인 후 꿀을 넣어 생강차로 마시기도 한다. 이 밖에 생강은 편강(설탕절임), 생강절임, 생강주, 고기나 생선 잡내를 없애는 데도 두루 사용되는 쓰임새가 많은 재료이다.

<그림 4> 생강과 덩이줄기

(생강)

(생강 덩이줄기)

자료: 네이버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검색일: 2020.3.10.)에서 재인용.

2.4.1. 수출 동향

세계 생강 수출량은 2000년 40만 톤에서 2017년 118만 4,000톤으로 195.8% 증가하였으며, 2017년 기준 세계 생강 수출액은 12억 8,658만 달러 수준이다. 생강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세계 수출량의 38.5%인 45만 6,000톤(4억 3,163만 달러)을 수출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 2위인 태국은 2017년 기준 생강 수출량이 8만 3,000톤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이며, 수출액으로는 1억 678만 달러 수준이다. 그 밖에 네덜란드(4.5%), 페루(2.3%), 인도(2.1%), 인도네시아(1.5%) 등의 순으로 생강을 많이 수출하고 있다. 상위 5개국의 생강

수출량은 전 세계 수출량의 54.4%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수출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8%이다.

<표 8> 국가별 생강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

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전 세계	400	624	762	1,080	1,304	1,184	(100.0)
중국	157	244	301	423	539	456	(38.5)
태국	28	42	31	21	44	83	(7.0)
네덜란드	3	7	21	44	47	54	(4.5)
페루	0	0	2	11	15	27	(2.3)
인도	7	11	20	31	19	24	(2.1)
인도네시아	14	2	4	26	22	18	(1.5)
나이지리아	4	10	6	19	17	13	(1.1)
네팔	8	19	30	24	18	12	(1.0)
브라질	8	9	6	8	9	6	(0.5)
코스타리카	1	2	1	1	2	4	(0.4)

주: 2017년 기준 수출량이 많은 1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20.3.10.).

2.4.2. 수입 동향

세계 생강 수입량은 2000년 22만 6,000톤에서 2017년 70만 8,000톤으로 212.8% 증가하였으며, 2017년 기준 세계 생강 수입액은 8억 9,754만 달러 수준이다. 생강의 최대 수입국은 미국으로 2017년 기준 8만 3,000톤을 수입해 세계 수입량의 11.7%를 차지하며, 수입액으로는 1억 1,494만 달러 수준이다. 세계 수입 2위인 파키스탄은 7만 9,000톤을 수입하며, 수입액으로는 1억 6만 달러 수준이다.

파키스탄(11.2%) 다음으로 일본(9.4%), 네덜란드(9.0%), 방글라데시(9.0%), 아랍에미리트(6.2%) 등의 순으로 생강을 많이 수입하고 있다. 상위 5개국의 생강 수입량은 세계 수입량의 50.4%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수입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5%이다. 우리나라의 2017년 기준 생강 수입량은 4,100톤으로 세계에서 24위이다.

<표 9> 국가별 생강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

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전 세계	226	340	460	685	777	708	100.0
미국	19	32	44	73	80	83	11.7
파키스탄	0	33	63	89	77	79	11.2
일본	104	89	65	61	69	67	9.4
네덜란드	7	13	24	54	63	64	9.0
방글라데시	5	8	38	66	85	64	9.0
아랍에미리트	12	13	23	44	48	44	6.2
말레이시아	8	24	35	38	42	41	5.8
사우디아라비아	8	13	21	34	32	34	4.7
영국	10	14	19	22	24	23	3.3
독일	2	4	8	14	20	22	3.1
⋮	⋮	⋮	⋮	⋮	⋮	⋮	⋮
한국	6.8	11.8	8.1	6.5	11.0	4.1	0.6

주: 2017년 기준 수입량이 많은 1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20.3.10.)

2.5. 육두구

육두구(Nutmeg)는 쌍떡잎식물 육두구과(Myristic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원산지는 인도네시아 몰루카제도이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반도 등 열대지방에서 주로 재배된다. 육두구는 열매를 맺는데 5~9년이 걸리며, 이후 수십 년간 수확이 가능하다.

<그림 5> 육두구 열매와 씨앗

(육두구 열매) (열매 씨앗)

자료: 네이버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검색일: 2020.3.10.)에서 재인용.

향신료로 사용되는 부분은 육두구 씨(종자의 검은색 부분)를 갈아서 만든 '넛맥(nutmeg)'과 씨앗의 빨간 껍질을 말려서 가루로 만든 '메이스(mace)'가 있다. 넛맥과 메이스는 향신료로서 주로 이용되며, 최대 산지는 인도네시아이다. 넛맥은 독특한 향기로 주로 생선 및 고기(소시지, 햄버거 등 가공육류)를 이용한 요리에 쓰이고, 메이스는 특히 생선요리, 소스, 피클, 케첩 등에 많이 사용된다.

육두구는 복통, 두통, 변비, 근육피로, 요통 등에 효과가 있는 한편, 미리스티신(myristicin)이라는 독성이 있어 드라마 '대장금'에서 장금이의 혀를 마비시킨 향신료로 과다섭취 시 경련, 환각, 발작, 불면증 등이 생길 수 있다.

2.5.1. 수출 동향

세계 육두구 수출량은 2000년 5만 4,000톤에서 2017년 9만 2,000톤으로 71.5% 증가하였으며, 2017년 기준 세계 육두구 수출액은 8억 1,699만 달러 수준이다. 육두구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과테말라로 세계 수출량의 38.9%인 3만 6,000톤(3억 6,701만 달러)을 수출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10> 국가별 육두구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

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전 세계	54	72	66	91	87	92	(100.0)
과테말라	14	32	22	33	36	36	(38.9)
인도네시아	12	18	20	23	20	24	(26.3)
인도	4	4	5	11	11	11	(12.2)
네팔	2	1	6	3	3	5	(5.1)
스리랑카	1	2	2	2	2	3	(3.1)
네덜란드	3	3	3	2	2	3	(3.1)
아랍에미리트	0	2	1	7	5	2	(1.7)
싱가포르	5	3	2	2	1	1	(1.2)
베트남	0	0	0	1	1	1	(1.0)
독일	0	1	1	1	1	1	(0.9)

주: 2017년 기준 수출량이 많은 1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20.3.10.).

수출 2위인 인도네시아는 2017년 기준 육두구 수출량이 2만 4,000톤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3%이며, 수출액으로는 1억 2,036만 달러 수준이다. 그 밖에 인도(12.2%), 네팔(5.1%), 스리랑카(3.1%) 등의 순으로 육두구를 많이 수출하고 있다. 상위 5개국의 육두구 수출량은 전 세계 수출량의 85.7%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수출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6%이다.

2.5.2. 수입 동향

세계 육두구 수입량은 2000년 5만 1,000톤에서 2017년 7만 9,000톤으로 55.6% 증가하였으며, 2017년 기준 세계 육두구 수입액은 8억 1,003만 달러 수준이다. 육두구의 최대 수입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 2017년 기준 1만 3,000톤을 수입해 세계 수입량의 15.9%를 차지하며, 수입액으로는 1억 8,713만 달러 수준이다. 세계 수입 2위인 아랍에미리트는 1만 1,000톤을 수입하며, 수입액으로는 1억 2,343만 달러 수준이다.

<표 11> 국가별 육두구 수입 동향

단위: 천 톤, (%)

국가명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전 세계	51	71	61	92	85	79	(100.0)
사우디아라비아	7	11	10	11	12	13	(15.9)
아랍에미리트	2	5	5	14	7	11	(14.3)
인도	6	7	4	6	6	9	(10.8)
파키스탄	2	2	2	4	5	5	(5.8)
방글라데시	0	2	2	4	4	4	(5.3)
네덜란드	4	4	3	3	3	3	(4.2)
미국	2	2	3	4	4	3	(4.0)
독일	3	3	3	2	3	3	(3.5)
네팔	0	4	0	0	1	2	(2.3)
영국	1	1	1	1	1	2	(2.0)
⋮	⋮	⋮	⋮	⋮	⋮	⋮	⋮
한국	0.21	0.21	0.19	0.16	0.14	0.19	(0.2)

주: 2017년 기준 수입량이 많은 10개 국가 순으로 정렬함.
자료: FAO STAT(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20.3.10.).

아랍에미리트(14.3%) 다음으로 인도(10.8%), 파키스탄(5.8%), 방글라데시(5.3%), 네덜란드(4.2%) 등의 순으로 육두구를 많이 수입하고 있다. 상위 5개국의 육두구 수입량은 세계 수입량의 52.1%를 차지하며, 상위 10개국의 수입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0%이다. 우리나라의 2017년 기준 육두구 수입량은 0.2톤(188kg)으로 세계에서 49위이다.

3. 요약 및 결론

본 고에서는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계 기타 주요 향신료(강황, 겨자, 샤프란, 생강, 육두구)에 대해 간략히 다뤄 보았다. 세계 기타 주요 향신료 수출량은 2000년 76만 5,000톤에서 2017년 172만 1,000톤으로 125.0% 늘었고, 수입량은 같은 기간 55만 톤에서 120만 5,000톤으로 119.0%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 기타 주요 향신료 교역량은 같은 기간 122.5%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세계 향신료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여행과 다양한 대중매체 및 소셜 미디어의 영향으로 양꼬치, 훠궈, 마라상궈, 타이식 쌀국수 등 외국의 식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은 더욱 다양한 식품들을 기대하고 있으며, 맛을 결정하는 이국적인 향신료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요즘은 우리에게 생소한 독특한 향신료를 인터넷을 통해 바로 주문할 수 있고, 아시아마트나 이태원 등 외국인 거주지역의 외국인마트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면역력 증진 및 감염 예방에 효과적인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강황', '생강' 등의 향신료도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과거 사스, 메르스 때 사용되었던 타미플루 치료제의 원료는 향신료인 '팔각'에서 추출했다고 하며, '커큐민'은 열을 내리고 염증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향신료이다. 한편, 중동지역 음식에 많이 쓰이는 생강 등 향신료를 중국에서 구매하던 바이어들이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금지되어 대체 농산물을 한국에서 찾고 있어[2] 국산 생강의 중동지역 수출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한국경제. '이집트서 한국산 생강 애타게 찾는 까닭'(2020. 2. 20.).

참고사이트

FAO STAT. (https://faostat.fao.org) (검색일: 2020.3.10.)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 (검색일: 2020.3.9.)
나무위키(https://namu.wiki) (검색일: 2020.3.9.)
네이버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검색일: 2020.3.10.)
한국경제. '이집트서 한국산 생강 애타게 찾는 까닭'(2020. 2. 20.).